

# 2월 경기 엉겨주춤

정 호 풍 부장  
(본회 지도부)

## 1. 머리말

'95년의 수레바퀴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정치판도나 기업경제나 대학 입시생들도 숨을 죽이며 밀려드는 현실 여건에서 몸부림 치면서 돌아가고 있음을 느낀다. 이에 박자를 맞춰서 땅도 요동치고 세상 곳곳에 난리 소문이니 농민들은 UR에 의한 난리요 도시민은 교통지옥에 따른 난리다. 남역에는 식수까지 부족할 정도로 때아닌 겨울가뭄 난리로 농림수산부 김정용 차관보의 애통한 죽음 보도는 머리숙여 고인의 명복을 빌게 한다. 100년도 못사는 인생길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인지, 부한 자던 빈곤한 자던 끝내는 한줌의 흙이 되어 지는 것이겠지만 우리의 영혼들이 조물주 앞에 서는 날 어떤 보고서가 기록되어질지, 그럴듯한 이력서가 붙을 수 있는 인생길이 되어 지기를 소망한다.

## 2. 양돈 농가 감소율 주춤

우리나라의 양돈 농가는 '83년도 54만여호로서 위세를 떨쳤고 그후로는 '84년도의 양돈경기 불황으로 연간 32%가 폐업하였지만 36만여호가 되었다. 경기의 여건에 따라 증감의 양상을 보이다가 '89년 이후로는 매년 감소하였고 '88년도 261천호가 '94년도 54천호로 격감하였고, 최근의 현황을 분기별로 <표 1>에 제시하였는바 '93년도는 UR의 위협심리 작용으로 분기 중에도 두자리 숫자로 감소율을 보이다가 경기의 호조가 계속되므로 한자리 숫자만 감소하고 있는가 하면 규모급 전업농들은 오히려 약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도 알 수 있으니 예를들면 천두 이상 5천두 미만의 농가가 지난 9월에 720호에서 742호로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1〉 양돈농가 변동현황

구분	농가 호 수	농가 감소율		두수 (천두)	호당보유 두 수	비 고
		기간중	년 중			
92/12	98,736			5,463		
93/ 3	87,272	11%		5,168		
93/ 6	76,515	12%		5,588		
9	72,561	5%		5,998		
12	70,376	3%	28%	5,927	84두	
94/ 3	64,456	8%		5,728		
6	59,272	8%		5,783		
9	56,428	4%		6,069		
12	54,235	3%	22%	5,995	110두	

'93년도 UR의 위협심리로 크게 감소하던 양돈농가가 '94년도는 호경기로 둔화되었고, 규모급 대군농장들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인다.

### 3. 수입돈육이 시세좌우

1월 20일 현재 수입 돈육 재고는 6천여톤이 된다. 이 물량은 하루 100톤 방출로 본다면 2개월 물량이고 50톤으로 본다면 4개월 공급충당 물량이 될 것인데 금년 MMA(최소시장접근) 물량은 지육으로 2만1천9백30톤 이니 정육으로 1만7천5백톤이 되는 것이며 이들 전체 물량은 지금부터 수입공매에 돌입하고 있으니 4월중에는 국내에 도착되겠고 예상되는 바 5~6월의 폭등세에 불을 꺼주는 찬물의 역할을 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들 물량은 서울 3개 도매시장에서 도축되는 물량의 2개월 남짓한 물량이며 전국적으로 년간 3백일 작업으로 계산한다면 매일 1천2백여두를 공급받는 물량이다. 계산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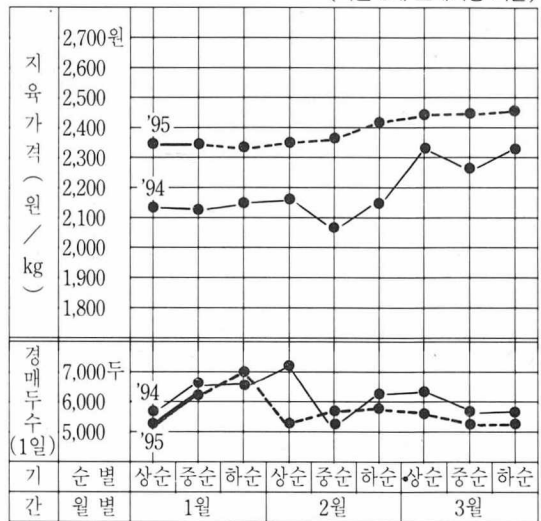
$$21,930,000\text{kg} \div 2.58\text{kg/두당} = 378,103\text{두}$$

$$378,103\text{두} \div 300\text{일/년} = 1,260\text{두/일}$$

그러하더라도 '94년도의 혹서 피해가 대단하여 혹서중 25% 감산을 했다는 여론이니 '95년의 양돈 경기는 비교적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다. 하지만 '94년도와 같이 시세의 오름세에 따라 수입 킬로그램이 없는데도 대거 수입

〈표 2〉 경매두수 및 가격 동향

(서울 3개 도매시장 기준)



\*점선은 예상치

하였으니 '95년도 킬로그램(21,930톤) 수입 방출함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른다면 특단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 분석된다. 문제는 농정 당국의 생산자 소득을 더 생각하느냐 물가 안정화로서 전체 소비자의 득표를 인식하느냐로 표현한다면 너무나 원색적인 표현일까?

### 4. 2월경기 기대할 것

2월경기 개경기란 말도 있었지만 요즈음은 개고기값이 쇠고기값 보다 비싸니 그말도 옛말이다. 설(명절)을 치르고 난 후이므로 소비위축은 당연하다 하겠다. 게다가 공급측면에서는 연중 가장 좋은 계절에(4~5월) 임신하여 더운 계절(8~9월)에 분만하는 녀석들이니 물량면에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2월의 경기는 1월에 비하여 내림세로 갈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시세가 곤두박질 하면 수입육은 방출이 중단될 것이지만 대세의 흐름은 어차피 내리막길로 가기 마련이리라 사료된다. 시세의 예상 도표를 〈표 2〉 참조하기 바란다. **●**